

닛산자동차 한국에 생산위탁

- 닛산자동차가 한국산 부품의 사용률을 높여오다가 마침내 완성차 생산을 한국에 위탁기로 발표
- 이는 동아시아지역에 큐슈, 부산, 대련 등 3개 거점을 연결, 한국 메이커를 중심축으로 부품을 공동화함으로써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려는 닛산그룹의 구상으로 르노·닛산·삼성간 win-win-win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로 평가

- 닛산자동차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에 다목적스포츠 차량(SUV) 등을 생산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닛산은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임
 - 닛산은 르노삼성에서 세단을 조달, 닛산브랜드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판매한 적이 있음
- 한국은 EU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다 원저의 이점도 있어 닛산그룹은 한국의 생산거점이 가진 강점을 살려 수출용 공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임

□ 한·중·일에서 생산의 효율화 도모

- 7월 20일 방한한 닛산자동차 카를로스 곤 사장은 경영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
 - 감산이 계속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에 닛산이 완성차 생산을 위탁하는 동시에 부품의 현지조달을 늘려 로컬기업들을 육성한다는 내용임

- 한·중·일 3개국의 생산 거점에서 부품을 공통화하여 모노즈쿠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기적인 전략이 그 배경임
- 곤 사장은 2014년부터 SUV, 「로그」의 차기모델을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에서 연간 8만대를 생산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발표. 르노닛산 연합이 1억 6000만달러에 달하는 설비투자도 부담
- 르노삼성의 유일한 생산거점인 부산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30만대. 판매부진으로 금년 생산대수는 17만대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. 곤 사장은 13만대분의 여유를 활용하겠다고 발언
- 한국에서 생산하는 「로그」는 전량을 북미지역으로 수출. 현재는 닛산자동차 큐슈에서 생산하고 있으나, 차기모델은 자동차의 주요 소비지인 미국 스마트공장(테네시주 소재)로 이전할 예정
- 미국에서 판매되는 부족분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보충
- ‘12년 3월 한·미 FTA 발효로, 한국에서 미국으로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현행 2.5%관세율이 2016년까지 철폐되기 때문에, 수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
- 곤 사장은 한국에는 경쟁기반이 있다고 하면서, 한국의 르노삼성에게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힘
- * 한국의 부품회사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지조달을 늘려 코스트를 인하할 방침임을 표명
- 한국산 부품은 품질이 안정적인데다, 원저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있어 이 점을 활용하여 닛산자동차큐슈 외에 중국 대련시에 2014년 가동하게 될 닛산의 신규공장에서도 사용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음
- 동아시아 지역에 큐슈, 부산, 대련 등 3개 거점을 연결, 한국메이커를 중심축으로 부품을 공통화함으로써 코스트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닛산그룹의 구상

□ 신형 상용차 부품의 20%를 한국산 부품으로 대체

- 닛산그룹은 이미 한국산 부품을 본격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형 상용차 부품의 20%를 한국산 부품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었음
 - 그룹 계열사인 닛산차체가 큐슈에서 생산, 금년 여름 발매 예정인 신형 차종 NV350캐러밴에 사용되는 부품의 20%를 한국산 부품으로 대체
 - 닛산 르노 그룹 산하 한국 르노삼성자동차의 부품조달망을 활용하여 내장재나 밀러 등의 부품을 조달
 - 엔고·원저에 따른 저가 한국산 부품 사용을 늘려, 일본 내 생산코스트경쟁력을 유지
- 닛산차체의 모기업인 닛산자동차는 큐슈지역을 일본 내 양산거점으로 설정,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에서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
- 닛산차체의 자회사에서는 주로 다목적스포츠차량(SUV)를 생산하는 닛산차체 큐슈가 르노삼성의 거래처인 부산 주변에 거점을 둔 26개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기로 결정
 - 닛산차체 큐슈와 부산의 거리는 약 200킬로미터로 일본의 관동지역이나 중부지역권보다도 가까워 품질이나 납기면에서 일본산 부품과 동일하고 가격도 상대수준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 조달에 나선 것임

□ 시사점

- 1999년 경영위기에 직면한 닛산자동차의 최고운영책임자(COO)로 발령받아 2000년 6월 사장으로 승격된 이래 과감한 비용절감 조치로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카를로스 곤 사장의 회견내용 중 다음 구절이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을 함축

- “한국의 생산능력 증강은 르노삼성이 코스트경쟁력과 성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라이언스(alliance) 전체로 서포트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밝혔다”
- “이번 부산 발표는 르노, 닛산, 삼성으로서 독특한 win-win-win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, 모든 파트너로서의 얼라이언스의 유연성과 그 힘을 증명한 것이다”
- 최근 일본자동차메이커들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의 조달을 늘려 오고 있는 가운데 닛산자동차의 완성차 생산위탁은 미국, 유럽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자동차생산거점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인정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7.19/20)